

세계적 양산의 환상적인 골프장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함평 다이내스티 컨트리 클럽

탄력적인 그린피 시스템 운영

- 인터넷회원 예약시
- 평일 최대 3만원, 주말 최대 5만원까지 할인가능
- 예약 : www.hpdynasty.co.kr 061320-7700, 7714

중동심판 편파 판정 올림픽 남녀 핸드볼 쇼예선 다시 치른다

중동 심판의 노골적인 편파판정으로 일복했던 2008 베이징올림픽 남녀 핸드볼 아시아 예선이 다시 치러진다.

국제핸드볼연맹(IHF)은 프랑스 파리에서 이사회를 열고 내년 1월 전에 베이징올림픽 아시아 지역 예선을 다시 치르기로 결정했다고 18일(한국시간)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치러진 올림픽 예선에서 남자의 경우 아시아핸드볼연맹(AHF) 회장국 쿠웨이트, 여자는 카자흐스탄에 각각 본선행 티켓을 빼앗겼던 한국 핸드볼은 베이징에 직행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잡게 됐다.

아시아 올림픽 예선이 다시 열리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 재개최되는 대회의 조직위원회 구성이나 심판 배정 등 기술적인 사안은 모두 IHF 책임 하에 이뤄지게 된다.

IHF는 또 경기 장소 및 대회 진행 방식과 같은 세부적 내용을 사흘 안에 공표하기로 했다.

그동안 아시아 올림픽 예선은 AHF의 주관으로 열려왔다. AHF는 단체 회장이자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의장인 아메드 알파라드 알사바 쿠웨이트 왕자의 입맛에 맞추기 위해 쿠웨이트에 유리한 편파 판정을 일삼아 왔는데 이에 대해 IHF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었다.

그러나 IHF가 이번에 올림픽 예선 재개최의 결정을 내리기까지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압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정규요 대한핸드볼협회 국제팀장은 "IOC가 이처럼 편파판정이 계속 벌어질 경우 핸드볼을 올림픽 정식종목에서 빼제시키겠다는 압박을 IHF에 계속 행사했다고 들었다. IHF에서도 결국 예선을 다시 치르는 것으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프로농구 2008시즌 용병 신장 제한 폐지

한국프로농구가 1997년 닷을 올린 이후 줄곧 유지돼 왔던 외국인 선수 신장 제한이 2008~2009 시즌부터 폐지된다.

신장이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스포츠인 농구에서 17일 한국농구연맹(KBL) 이사회가 신장 제한 폐지를 결정한 것은 10년이 넘는 한국프로농구사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그동안 농구계는 '외국 장신 선수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국내 선수들을 보호하기 위해 신장 제한을 뒀다'는 쪽과 '신장을 제한하는 리그는 한국 밖에 없다. 너무 지나친 규제'라는 쪽으로 나누어져 논쟁을 벌여 왔다. 이 같은 논쟁 속에서도 KBL 이사회가 외국인 선수 신장 제한 철폐를 결정하게 된 것은 하승진이라는 장신 선수의 등장과 무관하지 않다.

일부 구단들은 '하승진 효과'에 원적이 흔들렸다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미국프로농구(NBA)를 경험한 221cm의 국내 최장신 하승진(22)이 2008~2009 시즌 신인 드래프트에 나오게 되면서 이를 견제하기 위해 신장 제한을 풀게 됐다.

또한 '최대 208cm'라는 제한은 없더라도 '2명 합계 400cm'라는 규정은 그대로 유지시켜야 한다는 절충안도 있었다.

하지만 프로스포츠는 각 구단들이 좋은 선수들을 뽑는데 투자를 해야 하고 수준 높은 경기를 팬들에게 보여줘야 하는데 기존 규정으로는 이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NBA 경기 스포츠전문 채널을 통해 가정에 방송되는 상황에서 규제만 해서는 농구팬들의 눈높이를 맞출 수 없다는 것이다.

KBL은 결국 신장 제한은 풀되 2009~2010 시즌부터는 '외국인 선수 2명 보유에 1명 출전'으로 다시 변경키로 하면서 외국인 선수의 비중을 점차 줄여 나가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18일 열린 KIA 타이거즈 납회식에서 구단이 선정한 2007년 수훈상 수상자들이 김조호 단장(왼쪽 4번째)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현곤(최우수선수상), 김상훈(우수선수상), 이대진(우수투수상), 김조호 단장, 차영화(우수지도자상), 문현정(기량발전상), 이법석(모범선수상), 조기영(우수사원상).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내년엔 꼭 정상에서 웃어보자”

‘우울한 올해는 잊고, 내년엔 우승을...’

18일 광주 신양파크호텔에서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의 납회식(納會式·한해를 마무리하는 의식)이 열렸다.

2007시즌 폐막 후 처음으로 선수단과 프런트가 한자리에 모인 이날 납회식에서는 최하위로 마감한 올 시즌을 반성하고, 내년 시즌 우승을 다짐하는 뜻 깊은 자리가 마련됐다.

올 시즌 후 남해 마무리 캠프를 시작으로 일본 미야자키 자율훈련을 마치고 돌아온 선수들의 겹겹이 열린 얼굴에서 그동안의 훈련강도를 짐작할 수 있었다.

20대 초반의 젊은 선수들이 주축을 이룬 KIA는 이번 훈련 기간 동안 개인의 부족한 기량을 높이는 데 집중했다.

KIA는 내년 1월부터 열리는 스프링캠프에선 실전 위주로 팀 전력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다음은 조범현 KIA 감독과 일본일다.

-올 한해를 결산한다면.

▲선수단의 정신력이 무너지면서 우울한 시즌을 보냈다. 시즌은 끝났지만 최하위의 성적보다도 남아있는 패배의식이 문제다. 남해와 일본훈련캠프에서 강한 훈련을 통해 정신력을 끌어올리는 데 집중했고, 선수단의 침체된 분위기도 많이 좋아졌다.

-내년 시즌 목표는.

■ KIA 타이거즈 납회식

조범현 감독 “내년 선발 실력 위주”

▲당연히 우승이다. 프로구단이면 당연한 목표 아닌가. 남은 훈련기간동안 최선을 다할 것이다. 트레이드 등을 통해 전력보강도 꾸준히 진행할 계획이다.

-두산 포수 홍성흔의 트레이드설이 나오고 있는데.

▲트레이드는 현재 진행형이다. 홍성흔도 욕심이 나는 선수다. 아직 접촉은 하지 않았지만 개인적으로는 데려오고 싶다. 하지만 기량이 높고 있는 포수 김상훈과 포지션이 겹치고, 내년 시즌이 끝나면 김상훈과 홍성흔 모두 FA 선수가 돼 부담스럽다. 걸림돌이 많은만큼 구단과 고민을 해야 할 듯 싶다. 현재로서는 부정적이다.

-현재 팀의 강점과 약점은 무엇인가.

▲강점은 젊은 투수진이 많은 마운드를. 기량이 뛰어난 선수들도 눈에 띈다. 이들의 실전 경험 부족이 흠이라면 좋다. 약점은 불안한 내야진이다. 1루는 장성호, 2루는 김중국, 3루는 이현곤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유격수 자리가 공석이다. 용병으로 유격수 자리를 해결할 생각이지

만, 검증이 되지 않아 불안하다.

-내년 시즌 마운드 구성은.

▲서재응과 용병투수, 윤석민을 1~3선발로 세울 계획이다. 4~5선발은 미정이다. 다만 현재 재할증인 윤석민이 걱정된다. 스프링캠프에서 꾸준히 지켜보고 체크한 뒤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할 듯 싶다. 마무리는 한기주다.

-한기주의 팔꿈치 부상설이 있던데.

▲부상은 없다. 다만 최근 한기주를 만나 선발투수로 뛰고 싶다고 물었더니 본인이 부담스럽다고 했다. 아직은 30~40개 정도의 투구수가 적당하다.

-스프링 캠프 운영 계획은.

▲혹독한 훈련 밖에 없다고 본다. 물론 부상없이 훈련을 마무리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가을까지 야구를 하기 위해선 튼튼한 체력이 바탕이 돼야 한다. 일단 많은 선수를 데리고 갈 생각이다. 모든 선수에게 기회를 주고, 무한 경쟁 체제를 만든 뒤 '이름값'을 배제하고 철저한 실력 검증 등을 통해 내년 시즌 선발진을 구축하겠다.

-향후 일정은.

▲우선 약간의 휴식을 취한 뒤 내년 1월 9일부터 스프링 캠프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 스프링 캠프에선 선수 개개인간 부족한 점을 보완한 뒤 자체 훈련 등을 통해 실전 감각을 익히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독일 에르푸르트에서 막을 내린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스피드스케이팅 월드컵 5차 대회에서 3관왕을 차지한 한국 남자 스피드스케이팅 '단거리 간판' 이강석이 18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며 취재진에게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컨디션 좋아지고 있어 500m 세계新 자신감”

■ 빙속 월드컵 3관왕 이강석 귀국

남자 스피드스케이팅 단거리 간판 이강석(22·의정부시청)이 남자 500m 세계신기록 재경신에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강석은 18일 오후 2007~2008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스피드스케이팅 월드컵 5차 대회에서 따낸 금메달 3개를 목에 걸고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월드컵 시리즈 초반에는 새로 바꾼 스케이트 부츠에 적응하는 데 자신감이 떨어졌었다”며 “경기를 뛰면서 자신감이 생기고 덩달아 기록도 좋아졌다”고 귀국 소감을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 시즌을 앞두고 바꾼 부츠에 90% 이상 적응했다”며 “당분간 부츠를 바꿀 필요가 없을 정도로 적응을 마쳤다”고 덧붙였다.

또 5차 대회 100m에서 금메달을 딴 것에 대해선 “내 장점이 순발력인 만큼 100m 종목에 대해선 그동안 스타트 연습과 짧은 거리 가속 훈련을 많이 했다”고 설명했다.

‘李’ 몸값 낮추고 ‘태극마크’ 단다

(승엽)

5천만엔 깎인 6억엔에 도장

소속구단 일본프로야구 요미우리 자이언츠로부터 내년 3월 2008 베이징올림픽 대륙별플레이오프 출전 허락을 받은 이승엽(31·사진)이 지난해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영광 재현에 도전한다.

이승엽은 17일 연봉 재계약차 도쿄 구단 사무실에 들렀고 5천만엔 삭감된 6억엔에 합의했다.

대신 지난 10월 수술한 왼손 엄지가 아프지 않다면 3월7일~14일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리는 대륙별 플레이오프에 출전해도 괜찮다는 구단의 양해를 이끌어냈다.

3월 말부터 10월까지 140경기 대장정을 치르는 와중에 시즌 전 열리는 국제 대회는 분명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이승엽은 괜은 물론 김경문 대표팀 감독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 출전 의사를 공개적으로 천명했다.



올림픽 ‘대륙별 PO’ 출전

이는 지난해 상황과 비슷하다.

이승엽은 지난해 요미우리에서 보직 및 타순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인데 미야자키 스프링캠프에서 연습 경기 도 몇 차례 치르지는 않고 곧바로 WBC 대표팀 합류에 참가, 주전 확보에 대한 우려를 안겨왔다.

그러나 WBC에서 홈런 5개와 타점 10개를 쓸어 담으면서 대표팀을 4강으로 이끌었고 이 때 결정적인 한 방이 하라 다쓰노리 요미우리 감독으로 하여금 그를 4번 주포로 낙점한 계기가 됐다는 건 잘 알려진 얘기다.

이승엽은 지난해 시즌 초반부터 폭풍타를 몰아치며 타율 0.323, 41홈런 108타점이라는 대성공의 밑거름을 WBC에서 마련했었다.

내년 대륙별 플레이오프 준비도 WBC 때와 흡사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늦어도 2월 중순께 대표팀이 소집되고 한달 가까이 합숙을 치를 것으로 예상된다.

최경주 내년 마스터스 초청장 받을 듯

최경주는 지난 주보다 한 단계 뛰어 오른 9위로 올해를 마감했다. 이에 따라 최경주는 곧 마스터스대회조직위원회가 보내는 초청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엔 출전할 경우 최경주는 통산 여섯번째 마스터스에 나서게 된다.

“이제 남은 목표는 메이저대회 우승”이라

고 공언하면서 “아마 첫 메이저 제재 무대는 마스터스가 될 것”이라고 말한 최경주는 “메이저 우승 프로젝트”에 사실상 시동을 거는 셈이다.

연말 랭킹 50위 이내 선수 가운데 난생 처음 마스터스 초청장을 받게 된 선수는 14명으로 나타났다. 극적으로 마스터스 출전권

을 따낸 선수는 안데르스 한센(덴마크)이다.

올해 PGA 투어에 뛰어든 한센은 17개 대회에서 7차례나 컷오프되고 ‘톱10’ 한번 없는 실망스런 시즌을 보냈지만 유럽프로골프 투어 BMW PGA 챔피언십에서 우승, 가까스로 세계랭킹 50위를 차지했다.

16일 끝난 호주오픈에서 5위 이내에 입상해야 세계랭킹 50위를 지킬 수 있었던 로드 팰플러(호주)는 공동7위에 그치면서 랭킹이 52위로 미끄러움을 타 땅을 쳤다.

“시합 할수록 자신감 생기고 덩달아 기록도 좋아졌어요”

이강석은 지난 달 미국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 올림픽오lympic에서 치러진 그랑프리 1차 대회 남자 500m 디비전A(1부리그) 1차 레이스에서 34초20을 기록, 자신이 가지고 있던 세계기록 겸 한국기록(34초25)을 경신했지만 함께 출전했던 제레미 워더스푼(캐나다)이 34초03으로 세계기록을 작성하면서 아쉬움을 남겼다.

이에 대해 이강석은 “내 자신이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계기록이 깨져 아쉬웠다”며 “몸 상태가 좋아지고 있는 만큼 충분히 세계기록을 다시 작성할 자신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직 몸 상태가 80~90% 수준이다. 남은 대회에서 컨디션을 100%로 끌어올린다면 33초대 진입도 욕심을 내고 있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날 입국한 이강석은 국내에서 휴식을 취한 다음 네덜란드 헤렌벤에서 치러지는 2008 세계 스피드스케이팅 월드컵(내년 1월19~20일) 출전을 위해 내년 1월 10일께 출국할 예정이다.

골프·연도 회원권개 전환기법

특별회원권

골프장 1년/1회	골프장 1년/1회
광주 3,500	광명 900 5,200
남광주 4,300	파인힐스 12,200
승주 8,200	일평 7,400

상당분의 (062)351-0095